

공무원연금공단 안전 워크숍 개최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3~24일 서귀포시 소재 블루호텔에서 공단 및 자회사 안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대내외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유시설(천안상록리조트 등 5개 복지시설, 서울상록회관 및 제주사옥) 안전담당자들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경영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공단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위험성평가 교육과 산업재해 가



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의 관리방안 등을 집중 교육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안전활동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도 이뤄졌다. 방재해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 RCY 벚꽃길 플로깅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지난 25일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대학RCY 회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RCY 벚꽃길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날 RCY 회원들은 벚꽃 구경 인파가 몰린 전농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했다.

고영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며 "전농로에 찾아오는 분들이 깨끗한 거리를 보고 밝은 미소를 띄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디토리움 제주 콘서트 수익금 기부

오디토리움 제주(대표 이수목)는 지난 24일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외도동적십자봉사회(회장 이승제)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자선 콘서트 수익금 전액인 61만9000원을 기탁했다.

적십자사는 외도동 관내 취약계층 대상 긴급 지원과 희망풍차 결연 지원 성금으로 사용 할 예정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 개소

KMI한국의학연구소 건강검진센터가 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KMI는 지난 24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서 위성곤 국회의원과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검진센터 개원식을 개최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 1층과 2층에 자리 잡은 KMI 제주검진센터는 3409㎡(1031평)의 규모로 전문의 4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



며, 국가건강검진(공단검진)과 국가암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제주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

제주소방서(서장 양인석)는 27일 제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통제단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구조통제단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에서 신속·정확한 대응과 원활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능력 배양, 각 부별 책임 및 임무 등 통제단원의 임무 수행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와 역



할 숙달 훈련, 위기상황 조치능력 배양 등이다.



용두암라이온스클럽 보청기 지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주용두암라이온스클럽(회장 채상훈)과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원장 강동우)는 지난 24일 난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한 분에게 보청기 1대(26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외도의용소방대 성지요양원 봉사활동

제주소방서 외도남·여의용소방대(대장 김동주, 김정미)는 지난 26일 성지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외도 남녀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4·3희생자 추념식 대비 가로기 게양

제주시 봉개동(동장 김문규)과 봉개동연합청년회(회장 주광식)는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지난 26일 회원 15명이 참여해 제주4·3평화공원으로 향하는 명림로 구간에 가로기를 게양했다.

동정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참석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28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2023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할 예정.

제2공항 도민 경청회 참석
◇현기중 제주도의회 의원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2공항 도민 경청회'에 참석 할 계획.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별세
부동석(사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이 2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고인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출신으로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 제주도체육회 이사, 제주도배구협회 회장, 제35대·36대 제주도관광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치러진 제35대 제주도관광협회장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1년여간 회장직을 수행한 뒤, 2021년 2월 제36대 제주도관광협회장 선거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돼 연임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6명의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장례집행위원장은 강인철 제주도관광협회 수석 부회장이, 상임고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맡는다.

빈소는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2층 분향실에 차려질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으며 발인은 31일 오전 7시다. 장지는 양지공원이다.

'조선시대 제주금석문(하)' 출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기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탐라문화총서31 '조선시대 제주금석문(하)'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제주 전역에 산재한 조선시대 공공 성격의 비석과 마애명 등 금석문 전반에 대한 사진 자료와 비문, 역주를 수록하고 있다.

지난해 상권에 이어 올해 나온 하권에는 이전에 다루지 못한 목민관비 147기와 정려비 74기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상·하 두 권을 합해 약 400건에 대한 조선시대 제주금석문에 대한 연구가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올바른 지식, 깨끗한 미래

태양광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 제주슬라에너지 지식 캠페인 - 1

Q :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A :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라는 전력변환장치 주변에서 아주 적은 양이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 세기는 정부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으며 이는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정부의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 833mG (*주파수 범위 0.025kHz~0.8kHz 기준)

☑ 전자파 세기 비교 (생활가전기기 vs 태양광 인버터)

품명 구분	휴대용 안마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태양광인버터(3kW)	인덕션	전기장판
전자파 세기(mG)	110.75	56.41	29.21	7.6	6.19	5.18

태양광 인버터 전자파 발생량 3kW: 7.6mG

전자레인지 29.21mG

전기오븐 56.41mG

휴대용 안마기 110.75mG

태양광설비 무상보조 정부지원사업 예비접수중

☎ 사업용 건물 특별우대 50%이상 무상보조 혜택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선반남2길 31 www.jejesolar.co.kr

자료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 풍력발전 바로알기」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